

2021 바벨 프로젝트

기획 배경 : 단체소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배우공동체 자투리는 6회에 걸쳐 작은 국제연극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 연극제는 하나의 텍스트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국가의 연극단체들이 각각 자기의 모국어로 공연을 제작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올리는 연극제입니다. 일체의 통역 서비스 없이, 연속되는 두 언어 버전의 공연을 보게 되는 연극제로 자막이나 통역기를 통하지 않고 외국어 공연의 국내 상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실험적 연극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언어적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연극제로 언어권이 기본권이란 전제로 만들어지는 인권 연극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연극제는 매치업된 공연단체들 사이에서만 협력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5회 연극제부터 참여자 전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중언어 프로젝트인 바벨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티 레이시즘 워크숍으로 바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제작한 공동창작공연 "스테이션 시티홀"을 바벨 프로젝트화 하여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국, 한국의 5개국 연극인들이 참여하여 5개 국어가 사용된 작품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구적 재난 상황을 설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상황극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헬리 혜성이 궤도 변화에 따라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를 경험하는 프로젝트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 : 단체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예술적 가치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가진 예술가들과 연극애호가들이 함께 각자의 예술관을 지키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헬리 혜성이 다시 지구를 찾게 되는 2061년까지 매년 열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프로젝트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연극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구가 어느 한 사람의 부와, 어느 한 기업의 발전과, 어느 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성원 누구 하나 뒤처지는 일 없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국제행동으로 자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타 사업과의 차별성 : 우리 자체 내의 타 사업과의 차별성은 그간 우리의 연극제나 국제교류 사업은 일대일 매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류사업을 매개해주는 이주민 그룹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바벨 프로젝트라는 다중언어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며 그 차별성은 전방위적인 교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단체의 국제교류 공연과의 차별성은 논버벌로 인류 공통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이나 자막이나 통역기를 활용한 Translation 베이스의 교류 공연이 아니라 각 문화권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한 채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직접 부딪히는 교류 공연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발적인 번역과정을 만들어 가겠지만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공식적인 통번역

지원 없이 참여자들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 단위의 재난 상황 속에서 인류의 대응을 체험해 보는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그 재난의 원인을 헬리 혜성과의 충돌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룡의 멸종이 혜성이나 소행성 등 거대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면 인류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헬리 혜성의 주기가 예측되고 확인되어 그것이 단순한 천체의 하나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재앙의 전조로 알려졌습니다. 인류의 내면에 감추어진 혜성에 대한 공포심을 끄집어내어서 프로젝트와 연결하겠습니다. 주기에 맞추어 잘 운행하고 있던 천체가 갑자기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천문학자들이 존재를 추측하고 있는 플레닛 나인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몇몇 천체들의 공전 면의 각도의 차이를 이유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는 플레닛 나인은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추측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적으로 확장하여 이제는 의문이 더 많아진 화이트홀이나 월홀의 존재로 만들어진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 갑작스러운 충돌 가능성이 제시되는 설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퍼포먼스에는 공연장 안에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공연자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장에 없는 예술가들 역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 지구적 재난에 맞서는 컨트롤 타워로 설정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과 대응 상황들이 영상을 통해 전달됩니다. 각각의 언어들로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에 현장의 예술가들이나 관객들은 즉흥적인 반응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별로 3인의 주 예술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준비과정이나 원격 참여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고 공연 2주 전에는 인천으로 와서 함께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지구와 혜성의 충돌 시간으로 예측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동안 다양한 계획들을 만들어 배치하는 일들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공연장에는 삼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두고 수시로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천체의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태양 흑점의 폭발 영상이나 화산의 폭발, 혜성 충돌 전조로서의 소규모 운석의 충돌 등이 연출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소개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고백을 못 하고 있던 이가 컨트롤 타워에 차출되어 있고 지구 마지막 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에피소드나 과거 헬리 혜성의 출현을 돌아봤더니 캐롤릿 가문과 몬태규 가문이 예측되던 재앙에 대응하는 가운데 원수가 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만들어졌다는 가설하에 두 남녀를 위로하는 살풀이가 진행될 수도 있고 혜성의 출현으로 예측되던 재앙을 제거하기 위해 네로 황제가 죽인 관리의 복수를 위해 조직된 비밀조직이나 조선조 단종의 복권과 헬리혜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을 모티브로 비밀조직의 유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에피소드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예술가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들

이 제안하면 그 에피소드를 직접 만들거나 주최 측에서 예술가들을 모아 만들게 되면 본인이 직접 출연할 기회를 주어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채택된 에피소드들은 이벤트의 부분으로 배치되고 채택되지 않은 에피소드들도 바벨 프로젝트의 인터넷 플랫폼에 아카이브 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이벤트와 연계되도록 하고 소개된 에피소드 중에 독자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것들은 스펀오프로 제작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은 각 언어 커뮤니티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즉각적인 타 언어로 변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초 작업을 함께 할 통·번역 스태프들을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박한 음향이나 영상 등의 배치를 통해 서스펜스를 강화하여 충분히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갖춘 공연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지구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으로서 이 프로젝트가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